

CREATION TRUTH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NEWSLETTER



200차 Coffee Break 창조과학 탐사여행

창조과학 탐사여행 200회를 넘기며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요한일서 1장 1절)

창조과학 탐사여행이 200회를 넘었습니다. 지난 2011년 12월 26-28일 Coffee Break 가족 탐사여행이 200차였으며, 201차가 그 다음주인 2012년 1월 2-4일 유학생 탐사여행이었습니다. 2000년 2월 첫 탐사여행이 시작된 지 약 12년 만에 200회가 지나간 것입니다. 100차 탐사여행(2008년 7월)이 있던 지 3년 반 만에 100회가 더해진 것입니다.

탐사여행은 처음에는 다녔으신 분들이 또 다른 분들을 모아서 다음 탐사여행이 이루어졌으나 언젠가부터 교회 단위로 출발하며 그 횟수가 증가했습니다. 참가자도 점점 다양해지고 구분도



뚜렷해져서 목회자, 신학생, 유학생, EM, 장애인, 대학관계자, 아버지학교, CEO 등으로 세분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단지 한국 사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최근에는 일본인(7회)과 중국인(1회)에게도 확대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최근에는 다음 세대인 EM 탐사여행 횟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탐사여행의 경유지도 다양해졌습니다. 처음에는 3일간 그랜드캐년, 규화목공원, 세도나를 주로 경유하다가 나중에 브라이스캐년, 자이언캐년이 첨가되며 노아홍수의 증거들을 더 자세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07년부터 빙하시대 탐사여행이 시작하며 Death Valley, Yosemite 국립공원, Alabama Hills, Owens River Gorge등으로 확대되어 노아홍수 이후에 일어난 성경적 사실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탐사여행 기간도 대상에 따라 다양해져서 짧게는 3일, 길게는 10일까지 진행되기도 합니다. 인도자도 이제만 선교사뿐 아니라 현재 창조과학선교회 강사인 최우성, 김선옥, 김낙경 박사 등으로 늘어났습니다.

창조과학탐사여행은 독특한 프로그램입니다. 그 진행은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현장-버스-숙소라 할 수 있습니다. 탐사여행은 무엇보다 현장을 직접 목격한다는 점입니다. 일반 세미나와는 달리 지층, 화석, 협곡 등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그 느낌이 다릅니다. 막연하던 이들의 규모도 얼마나 큰지 구체적으로 그려집니다. 버스에서는 과학자들이 진행하는 창조과학 비디오를 통해 진화론에 대해 객관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녁식사 후 숙소에서 진행되는 정리강연에서 그날 주제에 대해 성경적, 과학적으로 다시 종합하여 듣게 됩니다. 무엇보다 각 진행과정에서 언제든지 궁금한 점에 대해 질문할 수 있는 것은 탐사여행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탐사여행은 위의 진행과정을 통해서 며칠 동안 성경과 과학을 통해 심도 있고 광범위하게 하나님과 변론하는 시간을 갖는 창조과학 종합 프로그램입니다.

탐사여행은 그 자체뿐 아니라 다른 창조과학 프로그램과 연결되기도 하고, 연결된 프로그램으로 인해 탐사여행이 더 활발해지기도 했습니다. 각 교회세미나, 창조과학학교, 신학교 강의(지금까지 남가주의 7개 주요 신학교에서 진행)뿐 아니라 ‘노아홍수 콘서트’(이재만 저, 2009)와 ‘빙하시대이야기’(이재만 최우성 공저, 2011)와 같은 창조과학 도서도 그 연장선에서 출판되었습니다. 특별히 「창조과학 탐사여행」소책자가 매번 인쇄할 때마다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졌는데 지난 200회 때는 가장 최신 것이 사용되었습니다. 소책자도 영어, 일본어로도 번역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탐사여행은 해를 거듭할수록 그 요청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이 커다란 세계관의 변화를 경험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부인하려고 해도 이 세상은 지금 진화가 사실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더 나아가 우리가 믿는 성경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의 사역자를 발굴하고 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인터넷 프로그램인 ITCM(창조사역 집중훈련, Intensive Training for Creation Ministry)은 그 일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ITCM을 통해 한국어로 진행되는 탐사여행뿐 아니라 다음 세대 EM의 인도자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창조과학 탐사여행이 횡수가 지남에 따라 자랄 것인 것은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이 탐사여행을 통해 변화되는 영혼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확장이 더 큰 자람이 되는 탐사여행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참석하시고 기도와 도움을 주신 교회와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과학에서 나온 것인가?

지난 번 칼럼에서 지금까지 UFO를 관찰하거나 외계인을 만난 사람이 없다는 것을 다루었다. No evidence! 즉 아직까지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이번에는 UFO가 어떤 아이디어에서 등장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UFO에 대하여 “공상과학(science fiction)”이라고 표현하며 과학이란 단어를 집어넣는다. 그러나 과연 UFO와 함께 과학을 언급할 수 있을까?

달에다 꽃을 피워보려고 한다고 가정하자. 지구와 같은 온도, 습도, 공기뿐 아니라 방사능을 차단해주는 자기장이나 오존층까지 완벽한 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또한 지구와 같은 흙과 미생물이 이미 그 행성에 존재해야 한다. 달에다 지구와 똑 같은 조건의 캡슐을 만들어 어떻게 해서 꽃을 피웠다고 하자. 그래도 문제다. 벌과 나비 같은 곤충이 함께 있어야 씨를 맺을 수 있다. 그만큼 지구는 생물이 살도록 아슬아슬한 환경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미 꽃씨를 지구에서 수입(!) 했어야 한다는 점이다.

UFO의 속을 들여다보면 이는 과학이 아니라 진화론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지구에서 우연히 생명이 발생하여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진화가 일어났다면, 수많은 별들 어딘가에 생물체가 존재하지 않을까?’라는 진화론이 그 시작이다. 미국의 예만 보더라도 미국에서 외계인에 대한 관심은 1940년도부터 불기 시작이 되었는데, 미국에 진화론이 대두된 것은 1930년도라는 것과 결코 무관할 수 없다.

번번히 실패를 하면서도, NASA를 포함한 최근의 천문학자들도 외계의 생명체에 대한 수색에 열심이다. 1975년 발사된 화성 탐사선인 바이킹호나 1977년에 발사된 태양 탐사

선인 보이저호 등의 예를 보더라도, 탐사의 주요 목적 중에 하나를 생명체 가능성에 있다고 공공연히 말하며 연구자금의 동기부여를 삼기도 한다. 그리고 물(水)이 있었던 흔적만 있어도 대대적으로 발표한다. 그리고 이런 발표는 곧바로 방송과 신문을 통해 일반인에게 전달된다. 그 기사 끝의 대부분 “생명에 대한 실마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결론을 맺는다.

그러나 이렇게 기사를 쓴 사람은 스스로 “나는 진화론을 믿고 있다”는 고백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어떤 과학자도 물에서 생명체가 발생하는 것을 발견한 경우가 없기 때문이다. 물에서 생명이 나올 것이라는 것은 단지 진화론적 신념에서 나온 것이다. 물론 아니라 지구와 똑 같은 조건이라도 결코 생물은 발생하지 않는다. 과학자가 지금까지 얻은 유일한 결과는 “생명은 생명으로부터”이다. 생명체가 물을 마시고 있는 것과 물에서 생명체가 나온다는 것은 전혀 다른 말이다. 전자는 과학적 관찰에서 얻어진 것이며, 후자는 진화론적 신념에서 얻어진 것이다. 어떤 경우 태양계 밖에서 행성계가 발견되었다는 발표만 있어도 생명체의 가능성이 언급된다.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다. 행성인 지구에 생명체가 살고 있다는 말



보이저 1호

과 행성이기 때문에 생명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말이다. 태양계 밖에 행성이 존재해도 생명의 유무와는 관련 없는 말이다. 혹시 독자들 가운데 이런 보도에 마음이 흔들렸던 적이 있었다면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다.

UFO를 믿는 사람들의 공통된 생각이 하나 더 있다. 바로 우주가 수백 억년 되었다고 믿는 것이다. 태양계를 제외하고 가장 가깝다고 여겨지는 별이 ‘알파 센타우리(α Centauri)’인데, 지구에서 무려 4.37광년이 떨어져 있다. 즉 빛으로도 4년 이상 걸리는 어마어마한 거리에 존재한다는 의미다. 은하로써 가장 가까운 은하라고 하는 마젤란 성운(Magellanic Cloud)도 18만 광년 떨어져 있다. 외계인을 보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외계인이 UFO를 타고 지구에 왔으므로 우주가 그렇게 오래되었다는 진화론적 믿음이 먼저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주와 지구의 나이’를 성경 그대로 짧게 믿는 것은 중요한 것이다. 다른 헛된 것에 미혹되지 않기 때문이다.

UFO는 증거도 없을 뿐 아니라 과학에서 나온 것도 아니다. 단지 우주가 수백 억년 되었다는 진화론적 믿음에서 발생한 산물일 뿐이다.



이재만 부회장
지질학, 과학교육학



창조과학 탐사여행

Coffee Break

지난 해 마지막 주인 12월 26-28일 성경공부 모임인 Coffee Break팀이 탐사여행을 가졌습니다. 지난 7월 어머니들을 중심으로 탐사여행을 가진 후 2세들에게도 반드시 창조사실을 전해야겠다는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80명의 인원이 모여 버스 두 대로 진행하였습니다. 한쪽 버스에서는 2세들만이 탑승해서 김낙경 박사가 영어로 진행했고(사진), 다른 한 버스에서는 부모님들이 함께하여 이재만 선교사와 John양 목사님의 통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탐사여행은 Coffee Break의 이명숙 권사님과 어머니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통역을 맡아주신 John 양 목사님께도 감사 드립니다. 이번 2세와 부모가 참석한 이번 탐사여행이 200회가 되어 더욱 뜻 깊었습니다.

13차 유학생 탐사여행

지난 1월 2-4일 13차 유학생 탐사여행이 출발했습니다. 9개 대학에서 50명이 참석했습니다. 서울 온누리교회(담임목사 이재훈)과 열반인 온누리교회(담임목사 박종길)에서 후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미국 각 처에서 젊은이들이 Las Vegas에 모여 하나님께서 성경대로 행하신 사실을 배우고 헤어지는 모습들은 참으로 감격입니다. 그 감격의 간증은 다음 Creation Truth에 소개될 것입니다. 14차 유학생 탐사여행은 오는 여름 8월 6-8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탐사여행 소개 동영상이 필요하신 분들은 창조과학선교회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보내드립니다.

2기 ITCM

2기 ITCM(창조사역 집중훈련, Intensive Training for Creation Truth)가 2011년 12월 24일부 올 2월 18일까지 8주간의 장정에 돌입했습니다. 올해는 7명의 학생들이 참가했습니다. 창조과학선교회가 다음 세대 사역자들을 발굴하고 양성하기 위해 실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독서, 세미나, 야외실습, 발표 등으로 진행됩니다. 매 겨울과 여름에 두 달씩 진행됩니다. 지난 여름에는 5 명의 학생들이 참석하여 귀한 결실을 얻었습니다. 앞으로 EM 2세들을 위한 ITCM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ITCM이 더욱 활발해지도록 많은 분들의 기도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200회 탐사여행 EM 강의 중인 김낙경 박사와 참가자들

풀러 신학생 창조과학 집중 세미나

오는 1월 30-31일 풀러 신학생 창조과학 집중세미나가 파사데나 장로교회에서 열립니다. 지난해까지 성황리에 진행되었던 풀러 신학생 탐사여행에 이어 열리는 창조과학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아시고 많은 목사님들께서 추천서를 써주셨습니다. 추천서와 자세한 일정은 창조과학선교회 홈페이지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이어서 2월 4일에는 참가자들과 가족에 한해 샌디에고 1일 탐사여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정 및 세부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간 : 2012년 1월 30일(월)-31일(화), 2월 4일(토, 샌디에고 1일 탐사여행)

시간 : 9:30am ~ 4:30pm (점심 제공)

장소 : 파사데나 장로교회

참가자격 : 풀러 신학생 부부(베이비시터 제공됨)
 참가비 : 무료(후원교회인 LA 사랑의 교회, 총현선교교회, 사랑의빛선교교회에서 지급)
 강사 : 이재만, 최우성

세미나 주제

1/30(월)	인류와 기원 / 종의 기원 / 노아홍수 / 빙하시대
1/31(화)	노아홍수와 빙하시대의 궁금증들 / 지구나이 / 과학과 패러다임 / 우주의 기원 / 창세기1장

샌디에고 1일 탐사여행

일 시	2012년 2월 4일(토) 8:00am-6:00pm
자 격	집중 세미나 참가자만 가능 (선착순 50명)
참가비	무료(함께하는 가족의 경우 1인당 \$60)
후 원	창조과학선교회

신청: 양영주 목사(213-999-3058)
 창조과학선교회 (213-381-1390), hisark@gmail.com

세미나

지난 달, 다음 교회와 단체에서 창조과학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하와이 뱌엘 침례교회(12/2-4, 담임목사 박상동, HI),
 로댐교회(12/7, 배명환, CA),
 오레곤 에덴장로교회(12/9-11, 원정훈, OR),
 GKYM Conference, (12/21, CA),
 BRIDGE 2011 (12/26-29, MD),
 리버사이드 순복음교회(12/31, 고헬렌, CA).

신학교 강의 종강과 개설

남가주에 위치한 Bethesda University, Grace Mission University, World Mission University에서 지난 2011 가을학기과 겨울학기 창조과학 강좌가 종강을 했습니다. 2012 봄학기는 미주장신대학교와 미주성결대학교에서 창조과학 강의가 개설 됩니다.



2차 ITCM 참가자들: 왼쪽에서부터 신은유, 이제혁, 양기선, 박한길, 최우성 박사, 임효섭, 황현식, 하성민



13차 유학생 탐사여행

양과 소

양과 소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동물일 것이다. 창세기에서 양과 소가 언급된 횟수를 보면 소는 30회 언급된 것에 비해 양이 79회로 압도적으로 많을 뿐 아니라 함께 언급할 때면 거의 대부분 양이 소보다 먼저 거론되어 양을 더 중요하게 취급했던 것 같다.

진화론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가축은 모두 다 인류가 야생동물들을 가축화 했다고 설명한다(Creation Truth 2012년 1월호 참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가축을 창조하셨다고 기록하였는데(창세기 1:25) 그 중에는 양과 소가 포함되었을 것이다. 또 노아홍수 이후 다른 동물들은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지만 가축들은 여전히 사람과 함께 살았다(창세기 9:2). 물론 사람이 방주에서 나온 늑대와 같은 야생 동물들을 가축화 한 경우도 있었고 성경은 각종 동물들을 사람이 길들일 수 있다고 말한다(야고보서 3:7). 양과 소는 정한 동물들이므로 노아홍수 때도 각각 7마리씩 방주에 태워졌으며(창세기 7:2), 그 중 한 마리는 홍수가 끝났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물로 사용되었다(창세기 8:20). 결국 각각 암수 3쌍의 양과 소에서 변이

(variation)라는 과정을 통해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수백 종의 다양한 양과 소들이 생겨난 것이다.

변이의 폭은 일반인들의 상상을 초월한다. 개의 경우 변이의 폭을 살펴보면, 크기는 280cm 에서 10cm, 체중은 100kg 이상에서

300g까지, 색깔은 검정에서 흰색, 털 길이는 10cm 에서 털이 전혀 없는 누드 개까지 다양하다. 그러나 모든 개들은 방주에서 나온 한 쌍의 조상에서 유래한 것이다. 사람의 다양한 피부색도 노아의 후손들 안에서 발생한 변이의 결과다. 그러나 찰스 다윈은 갈라파고스 섬들에서 보았던 다양한 핀치를 소진화라고 생각 했는데 그것은 소진화가 아니라 커다란 변이일 뿐이다. 다윈 당시에는 유전법칙과 변이의 개념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윈은 이런 소규모의 진화 과정이 수 억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계속 된다면 핀치새의 범위를 뛰어 넘어 새로운 새가 될 것으로 상상한 것이다.

혹자는 이런 질문을 한다. “만약 변이의 폭이 그렇게 크다면 방주에는 어떤 동물을 실었을까요?” 아주 흥미로운 질문이다. 이럴 때 필자는 역으로 질문을



해 본다. “노아홍수 전과 노아홍수 후 중에서 동물의 다양성이 언제가 더 높았을까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아홍수 전에 동물 모습이 더 다양했을 것이라고 대답한다. 다양한 모습이 더 보기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사람의 피부색이 다양해져서 인류가 서로 불화하게 되고 근친 결혼으로 유전병이 늘어난 것처럼 동물들도 마찬가지다. 노아홍수 후에 생물들의 모습이 훨씬 다양해졌음에 틀림 없는데, 그 이유는 동물들이 동일한 환경에서 자유롭게 교배할 수 없어 다양한 유전정보를 갖지 못한 결과 커다란 변이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노아홍수 전에는 온 세상이 따뜻하여 한대나 열대 지역이 없었다. 또, 지금처럼 6개의 커다란 대륙으로 나누어진 것이 아니었을 것이기 때문에 동물들이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서로 교배하였을 것이므로 유전정보가 골고루 분산되어 특별한 모습이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고 더 건강했을 것이다. 대부분의 동물들이 평균 모습에 가까워 변이의 폭이 무척 작았을 것이고 따라서 어떤 동물을 방주에 싣든지 충분히 각 종류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노아홍수 후에는 기후가 지역적으로 극과 극으로 다르고 방주에서 나온 적은 수의 동물들이 어디로 이동했느냐에 따라 아주 빠른 속도로 큰 변이가 나타나게 되었을 것이다.

현재 300 가지 이상의 순종 양들이 있고, 소의 경우에는 이보다 훨씬 많은 800 가지 이상의 순종 혈통이 전 세계에 퍼져 있다. 이들은 450



가지의 순종 개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사람들이 격리와 인공선택을 통해 변이의 한계 안에서 만들어 낸 것들이다. 그러나 변이된 경우에는 유전정보가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 변화가 아무리 커 보여도 소진화라고 부를 수 없다. 오히려 대부분의 순종은 조상이 가지고 있던 유전정보를 일부 잃어버렸을 때 비로소 새롭게 보이는 특징을 드러내는 순종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에 이미 각 종류별로 이 모든 유전정보들을 사람들을 위해 넣어 두신 것이다.

창조 때부터 양과 소는 가장 중요한 가축이자 재산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창세기에서는 양과 소는 노비나 은금이나 나귀 혹은 낙타보다 먼저 언급될 정도로 소중한 가축이었음을 알 수 있다(창 12:16; 24:35). 특별히 인류 초기에 양은 가장 중요한 동물이

있을 것이다. 아벨이 양치는 자였고 양의 첫 새끼로 제사를 드렸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동산에서 범죄하고 부끄러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죽 옷을 입혀 주셨는데, 하나님의 어린양이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그 가죽옷은 양의 가죽이었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 사람들을 위해 양과 소를 가축으로 창조하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창조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 의 사랑이 배어나고 있다.



최우성 박사
생리학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물질

화학은 물질과 에너지 그리고 이들의 상호작용을 다루는 분야이다. 화학에서 원소(elements)들은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의 형태를 결정하는 건축자재들(building blocks)이다. 여기서 하나의 원소는 일반적으로 더 이상 간단한 물질로 나눌 수 없는 물질을 말한다. 현재 약 100여 개의 원소들과 이 원소들의 조합으로 모든 물질들을 설명하고 있다.

물질은 일정 공간을 점유하는 질량(mass)을 가진 모든 것을 말한다. 한편 에너지는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이다. 즉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질서를 부여할 수 있는 잠재력이다. 빛, 열, 및 소리 등이 에너지의 한 형태들이다. 물질계에서 어떤 변화가 생길 때 에너지가 작용되었고 에너지의 한 형태가 또 다른 형태로 바뀔 때 마다 어떤 변화가 있었음을 말해준다.

아인슈타인은 물질이 갖는 에너지는 그 물질의 질량과 빛의 속도(진공에서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며 등가식으로 표현($E=mc^2$)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즉 물질(m)과 에너지(E)가 상호 교환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물질이라도 빛의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므로 엄청난 에너지의 덩어리인 셈이다. 따라서 원자폭탄의 위력을 가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에너지 덩어리인 물질 세계는 엄격한 법칙이 지배하고 있다. 그 첫번째 법칙이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다. 다시 말하지만 에너지는 열에너지, 빛에너지, 소리 에너지, 화학에너지, 기계(운동)에너지, 전기에너지 등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주방에서 사용하는 전열기(오븐)는 전기에너지를 열에너지로 바꾸고, 자동차는 가솔린 연료를 태워서 화학에너지를 기계(운동)에너지로 바꾼다. 이렇게 에너지는 다른 형태로 바뀔 수는 있지만 저절로 발생하지도 않고 없앨 수 없다. 이것이 소위 에너지 보존의 법칙(열역학 제1법칙)이다.

그렇다면 현존하는 에너지, 즉 물질은 어떻게 또 왜 존재하게 되었는가? 물질 세계를 이해하는데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다. 그런데 과학은 이 질문에 해답을 주지 못한다. 반면에 성경은 최초로 하나님이 창조하였다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다. 성경의 창세기 1장에는 6일 동안의 창조 사역을 기록하고 있다. 또 잠언 8:22에 “하나님이 태초에 조화를 이루셨다”고 하고 느헤미야 9:6에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고 계시다”고 하여 물질의 세계에는 창조와 엄격한 질서의 법칙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물질세계를 지배하는 두번째 법칙은 무질서 증가의 법칙(열역학 제 2법칙)이다. 이는 유용한 에너지는 감소하고 쓸모없는 에너지는 증가한다는 법칙이다. 모든 물질이 이 법칙 아래 있기 때문에 예외 없이 모든 물질은 점점 쇠퇴



스스로 발생하지 않는 이 은하의 엄청난 에너지는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을까?

한다. 공장에서 막 출품된 제품이 더 새로와 질 수 없고 먹다가 남긴 사과는 부패해 버린다. 모두가 쇠퇴한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은 모두 이 법칙 아래있다. 예외가 없다. 예외가 있다면 진화의 증거로 이용될 수도 있겠지만 단 하나의 과정도 예외가 없다. 진화가 되려면 점차 나아지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는데 이 법칙은 진화론을 정면으로 거부한다.

열역학 제1법칙과 제2법칙을 통하여 살펴보았듯이 물질세계는 엄격한 법칙들이 서로 조율되어 있어서 로마서(1:20) 말씀과 같이 창조자의 지혜와 솜씨를 부인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이 세상에 흔히 있는 가장 간단한 물질이라도 저절로 우연히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롬11:33).



이동용 박사
항공기계공학

Grace Mission Institute 탐사여행

10/13-10/15/2011

훈련 막바지에 주님께서 이 역사의 증거를 직접 보여주심에 더욱 의미 있고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진화론자가 아니면서도 얼마나 진화론적이고 믿음과 거짓 사상의 발전을 용납하고 있는 자였는지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땅도, 온 피조물도 이렇게 하나님의 찢어지게 애타는 마음과 숨씨를 즐거워하고 있을때 하나님의 형상 닮은 나는 어떻게 살아왔나 되돌아 봅니다. -한지영

선교훈련을 위해 미국에 와서 아름다운 자연과 거대한 땅을 보면서 하나님을 더욱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이전에 하지 못했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은 노아의 홍수 이후 멸망한 상태라는 것, 홍수 이전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던 그 세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의 모습을 보면서 아름답다고 감탄하는데 홍수전 그 세상-처음에 창조하신 그 자연은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아무리 상상을 해도 알수 없을것 같습니다. 지금 이 땅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고전2:9)”.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운행하시며,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원지혜

“창1:1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주 되시고 나를 창조하시되 신묘마축하게 지으심을 믿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곳, 그랜드캐년에 와서 최우성 박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 현장을 눈으로 확인 하면서 제 신앙의 의식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복음은 실제’라고 하면서 말씀이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주심이라고 믿습니다. 그 결과로 창세기 1:1절의 말씀부터 저의 삶의 실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천지와 모든 만물, 무엇보다도 사람을 자기형상대로 지으셨음을 확실히 믿습니다. 앞으로, 아프리카 케냐에서 사역하게 될텐데 그 땅과 그 땅의 사람들을 대할때에 하나님이 창조자 이심을 믿고 그 사실을 전하는 하나님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뿐만아니라 그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요3:16)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분의 아들을 이땅에 보내주신 복음의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김은심

CD로 봤을 때보다 실제로 가서 보고 들어서 정말 좋았고, 진화론을 믿지 않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더 확실히 진화가 아니라 창조가 사실이란걸 느끼게 되었고 노아홍수전

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셨다는것도 알게 되었다. 이젠 이 세상을 다른눈으로 볼수 있을것 같다. -최의빈/선교사 자녀

저는 이번 여행을 통해 정말 좋은 경험을 한것 같습니다. 정말 진화론은 허구라는것, 창조가 진짜라는 것이 자연으로도, 과학으로도 증명되었다는게 정말 신기했고 전에는 그냥 이 세상을 볼때도 별로 생각없었지만 이제는 지금 이 세상도 아름다운데 홍수전의 세상은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회를 갖게하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게 됐습니다. 탐사여행 짱!! -최승빈/선교사 자녀

이번 창조과학회를 통해 사실과 증명을 성경을 통해알려주심을 깨닫게 함을 전할 사명이 있음을 감사드리고 우리의 모든 생활은 하나님 영광돌리는 생활이 되어야 할것이다. 그동안 수고하신 최우성 박사님께 감사드리고 믿는자들이 확실히 알고 전하는 전파자들이 될것으로 믿는다. -손흥기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가 만들었는가? 모든이들의 궁금증인것 같다. 어릴적 학교를 다니면서 진화론에 대해서 배웠고 그런줄알고 살았다. 그러나 주님을 영접하고 천지를 창조하신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만드신이가 하나님이심을 체휼하게 되었다. 이번 창조과학 탐사는 훈련기간중 마지막 코스였다. 이번 창조과학 탐사여행을 통해서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박사님의 설명을 들으며 창조의 하나님, 홍수의 심판으로 땅의 변형됨, 우주의 세심함까지도,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에 있었음을 알게되었다. 전에는 아름다운 협곡으로만 알았던 그랜드캐년이 창조의 기쁨과 인간의 타락의 아픔이 있는곳임을 알게되었다. 창조시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던 하늘 아버지의 기쁨의 모습과 인간의 죄악을 심판 하실수밖에 없었던 아버지의 아픈 마음을 동시에 느낄 수 있었다. 사진을 찍는동안 하늘에 무지개가 떴다. 다시는 이 땅을 물로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언약의 무지개이다.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느껴본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음세대에게 하나님이 어떤분인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가르쳤던 것처럼 다음세대 아이들에게 선교지에 영혼들에게 바로 가르치고 전해야 하겠다. 먼훗날 아버지의 나라에서 나를 꼭 보고싶다. 창조시의 이땅의 모습을 ... -유인숙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로 한번도 주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의심해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과학적 근거를 보여주시면서 설명해 주시니, 더욱 확실하게 깨달을수 있었고 진화론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위험한 학설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자손들에게 확고하게 알려주어야 할것을 느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양자

이번 탐사여행을 통하여 성경의 말씀이 참된 진리의 역사적 사실이란 것을 마음으로 확신하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천지를 지으신 그 위대하심에 존귀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신태식

● 편집되지 않은 더 많은 간증은 웹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지역일정 SCHEDULE

2012년 ACT Schedule

- 
- 2/2-5/17 미주장신 (최우성), CA
 - 2/4 샌디에고 탐사여행 Fuller Seminary 신학생
 - 2/12-15 창조과학 탐사여행 (나성 순복음교회 남미선교사)
 - 2/20-23 창조과학 탐사여행 (지구촌교회)
 - 2/26 LA 온누리교회 (최우성), LA, CA
 - 2/27-29 창조과학 탐사여행 (유타주 베다니침례교회), (이재만)

 - 3/2-4 나침반교회(이재만), CA
 - 3/5-7 창조과학 탐사여행 (포모나 인랜드교회)(이재만)
 - 3/25 주님의영광교회(이재만), CA

 - 4/1 주님의영광교회(최우성), CA
 - 4/1 LA 온누리교회 (노희성), LA, CA
 - 4/1-5 창조과학 탐사여행 (한국두란노 바이블 칼리지 모집)
 - 4/8 주님의영광교회(최우성), CA
 - 4/9-4/26 한국방문(이재만)
 - 4/9-6/18 중부창조과학학교 12기(엑소더스교회, 847-208-9544), Buffalo Grove, IL
 - 4/11-13 대만방문(이재만)
 - 4/14 전문인 선교사 훈련(이재만)
 - 4/15 애일교회(이재만, 한국)
 - 4/15 주님의영광교회(최우성), CA
 - 4/16-18 부산 영도 연합집회(이재만, 한국)
 - 4/20-22 신촌교회 (이재만, 한국)
 - 4/23 두란노칼리지 (이재만, 한국, 10:00am-5:30pm)
 - 4/26-5/7 일본방문(이재만)

 - 5/6 LA 온누리교회 (노희성), LA, CA
 - 5/10-17 창조과학 탐사여행 (안산동산교회)
 - 5/19-26 창조과학 탐사여행 (CGN-TV)
 - 5/22-25 창조과학 탐사여행 (국제가정교회 이사회)
 - 5/26 순회선교단 (최우성)

● 보다 자세한 일정은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후원 SPONSORSHIP

창조과학 선교회는 초교파 선교단체로서 여러분의 후원으로만 운영됩니다. 창조과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기를 바라는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재정적으로 후원을 하실 분들은 미국 비영리 단체(Nonprofit Organization)로 등록되어 있는 ACT(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로 후원금이 입금되도록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홈페이지(www.HisArk.com)를 방문하시면 온라인으로 후원이 가능합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Payable to : ACT



창조과학선교회 |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한국창조과학회 미주지부)

Mailing address | 3010 Wilshire Blvd. PMB 578, Los Angeles, CA 90010
Office Address | 1543 W Olympic Blvd #300, Los Angeles, CA 90015
Tel. 213-381-1390 Fax 213-381-9242 www.HisArk.com / hisark@gmail.com